송화강(松花江) 상류지역 문화답사
- 국제학술대회 참가기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 용 직

2009년도 가을 초에 나는 내가 관계하는 육당학회의 일원으로 중국 길림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가졌다. 우리 일행은 9월 6일 인천공항을 출발하여 길림 소재의 북화대학에서 개최된 〈동북아시아의 교류, 접촉의 과거, 현재, 미래〉를 대주제로 한 논문발표와 질의, 토론회에 참가했다. 논문발표는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있었고 그 내용도 문학과 어학, 역사, 정치, 외교, 사회 및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발표자들은 한·중·일 세 나라 출신으로 여러 분야에 걸친 주제 논문 발표에 진지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보람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후 사흘간의 연구발표회가 끝나자 우리는 다시 북화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北華大學東亞硏究中心)의 후원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고토를 돌아보고 백두산에 등정하는 역사탐방 여행의 기회도 가졌다. 이것은 그때 내가 작은 수첩에 틈틈이 적어둔 메모를 토대로 한 여행기 중 일부에서 뽑아낸 것이다.

9월 6일

언제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학술대회 참가에는 다소간의 사연이 뒤따른다. 우리 학회가 주최의 한 축이 된 이번 학술대회도 그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한·중·일이 공동 참가하는 학술세미나를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은 2008년도였다. 그 주선역을 맡은 최박광(崔博光) 선생이 산동대학(山東大學)에 체류하면서 차분하게 일을 추진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직후부터 신종플루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처음 미주쪽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독감이 다음 지역으로 중국에 상륙했다. 그때 최박광 선생의 동분서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여름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던 학술대회가 오늘에까지 연기된 것이다. 사실은 어제 밤 나는 늦게까지 잠이 들지 못했다. 혹 산동대학의 최박광 선생이 중국측의 사정으로 이번 대회가 다시 연기된다는 장거리 전화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새벽에 눈을 좀 붙였다가 깨어보니 어느새 5시 가까이였다. 곧 A.K프라자 쪽에 가서 인천국제공항행 리무진 버스를 탔다. 내 인천공항 도착은 7시 조금 지난 시각이었으나 그때까지 우리 일행 중 나보다 먼저 공항에 나와서 출국수속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다.

8시 20분 장춘행 여객기의 발권 시작 시간까지 인천공항 대합실에 나타난 사람들은 윤홍로(尹弘老), 주종연(朱鍾演), 황호덕, 최원규(崔元圭), 전성곤(全成坤), 신인섭(申寅燮) 등 교수와 성균관대학의 연구생 등이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이륙하는 시간은 11시 30분 예정이어서 상당한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그런데 막상 비행기표를 사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겼다. 일행 중 윤홍로 교수가 집을 나설 때 확인을 하지 않고 구여권을 들고 나온 것이다. 윤 교수는 휴대전화로 부인에게 연락하여 새 여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렇게 해보겠다는 부인의 답을 듣고 윤 교수는 기다리기로 했다. 뒷꼭지가 땡기는 일이었으나 예정된 탑승시간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를 남겨두고 기내로 오를 수밖에 없었다. 자리를 잡고 나서도 우리는 탑승구를 줄곧 지켜봤다. 그런데 문자 그대로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륙 5분 전에 윤홍로 교수가 기내로 들어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박수를 치고 탄성을 올렸다. 내가 알고 있는대로라면 윤홍로 교수의 집은 용인시의 수지지구에 속하는 아파트였다. 거기서 인천공항은 전문 경주용 차로라도 한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다. 그런 거리를 윤 교수의 부인은 여권을 찾아내어 몇 번이나 신호 대기를 받으면서 인천공항까지 달려와 부군에게 그것을 전달한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부인을 두었다고 우리 일동의 화제가 되었다.

벼이삭을 바라보며

우리가 탄 비행기는 11시 30분(중국시간 10시 30분) 장춘공항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이 출찰구를 벗어나자 북화대학의 이선홍(李善洪), 염송심(廉松心) 등 두 교수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두 교수는 모두 조선족이어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우리는 곧 목적지인 길림으로 향했다. 우리가 탄 차는 봉고형이었는데 장춘시를 빠져 나서자 거의 일직선으로 된 고속도로를 동쪽으로 달렸다. 때가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도로 양측의 들판에는 푸른빛이 더 많은 경작지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사이사이에 무거운 이삭을 단 벼를 보면서 한가닥 감회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본래 벼의 원산지는 양자강 남쪽으로 아열대지역이었다. 삼국시대까지 그런 이유로 도작농사는 한강 이남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우리 농민들이 북간도 개척에 나섰다. 그것으로 벼농사가 두만강과 압록강 북쪽까지 뻗치게 된 것이다. 특히 송화강 유역의 벼농사는 1910년의 주권상실과 함께 우리 우국지사들이 결행한 만주행과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진다.

경술국치를 당하자 국경선을 넘어 독립군 기지를 만주에 건설하고자 한 지사의 한 사람이 석주 이상룡(石洲 李相龍)이었다. 본래 그는 500년 동안을 안동지방에서 세거한 고성 이씨 이청각(固城 李氏 臨淸閣)의 종손이었다. 그는 보수 유림의 집에서 태어났으나 서구의 충격에

접하자 상투를 자르고 신식 교육기관인 협동학교를 세우기에 앞장섰다. 도저한 민족운동자이기도 해서 한때는 일제타도의 실력 투쟁의 길을 모색하여 의병활동에도 참여했다. 그런 그가 우리 주권이 송두리째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가자 안동지역에서 김동삼(金東三), 유인식(柳寅植) 등과 동행하고 중앙에서 이시영(李始榮), 이회영(李會榮), 박은식(朴殷植), 신채호(申采浩) 등의 동지들과 제휴하여 일가족과 친지를 거느린 채 망명길에 올랐다.

석주(石洲)의 망명시기는 1910년 막바지 무렵이었다. 그가 고향을 등진 때는 세 말, 한겨울이었으므로 그가 망명지로 택한 서간도에는 이미 혹한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런 추위 속에 망명지사의 무리들은 홑옷에 한뎃잠을 자면서 1차 목표지가 된 회인현(懷仁縣)을 향했다. 그들의 망명생활은 유화(柳花)를 거쳐 삼원포(三源浦)에 자리를 잡으면서 본론에 접어들었다. 형식상 거처가 결정되었다고 해도 석주와 그의 동지들이 일상생활의 기본 요건이 되는 식생활이나 입을 것, 잠자리 걱정을 할 게재는 아니었다. 그들은 도착과 함께 여기저기에 흩어져 사는 우리겨레를 모아 가르치는 일을 꾀해 나가야 했다. 청장년들을 훈련하여 일제 타도의 전력화하는 일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위해 석주나 그의 동지들은 개척사를 만들었으며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군사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는 청장년들을 모아 국내 침공의 실전부대를 편성하고 그 사령부인 군정부도 만들었다. 청산리와 봉오동전투의 기간요원을 기른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된 것도 그와 같은 항일저항, 독립운동의 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망명운동자들의 민족투쟁은 문자 그대로 적수공권으로 시작된 것이었고 그것도 중국의 동북쪽 일각인 만리 이역에서 시도되었다. 그들의 독립운동을 위한 의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역비례 상태가 된 것이 있었다. 그것이 가족과 친지들의 생활대책을 전혀 세우지 못한 점이었다. 특히 일행 가운데 아들, 딸, 며느리에 손자, 손녀까지 거느리고 온 경우가 그랬다. 망명지사들의 민족운동은 무시로 집을 비우고 때로는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드는 일이었다. 그런 서슬 속에서 그들이 가족과 피붙이들을 위해 땅을 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해낼 겨를이 있을 리 없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망명집단의 생명선으로 떠오른 의식주 문제가 고스란히 그 전에 농사일을 해 본 적 없는 아녀자와 노약자의 몫이 되어 버렸다.

다음은 그 역시 경술국치를 당하여 고국을 등진 의병장 왕산 허위(旺山 許蔿)의 종손녀 허은 여사의 구술기록이다.

> 우두거우에 살던 우리는 무오년 하동 다두자로 옮기고(……). 큰 오빠네는 다두자의 고산자 장터에서 한 10리 떨어진 노비팔음으로 살림나가 따로 살았다. 그때 내 나이가 열한 살이었다. 또 논을 개간하였다. 산전개간 하듯이 땅을 덮은 나무와 풀뿌리들을 쳐내야 했다. 기구나 연장이 신통찮아서 여전히 힘든 작업이었다. 땅은 넓어서 확 트인 시야가 끝간데 없이 펼쳐져 있었지만 워낙 넓어서 일부만 했다. 또 미리 와있던 이북 사람들이 개간을 많이 해 놓았다(……). 둥근상같이 땅 속에 박힌 뿌리를 캐내어야만 제자리에 흙을 밟아 논을

만든다(……). 이렇게 논을 개간하여 논농사를 난 뒤부터 비로소 밥을 맛볼 수 있었다.
- 변창애,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 소리가』
(정우사, 2000), 64면.

이런 회고담을 남긴 허은 여사의 집은 경상도 임은(林隱)에 세거한 명문이었다. 그 일족은 모두 살림이 유여했고 글로도 이름이 높았다. 그의 종조부인 旺山이 을미의병 때 영남지방 의병의 총대장이었다. 그가 일제에 붙잡혀 처형되자 허은 여사는 조부를 따라 압록강을 넘어 망명길에 올랐다. 때에 그의 나이 아홉 살이었다(허은, 가사 「회상」에 의거). 조부가 식민지 체제하의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고향 임은에는 상당한 농토가 있었고 훌륭한 집과 다정하게 살 수 있는 이웃이 있었다. 그런 허은 여사가 망명 가족의 일원이 된 후 열 살 전후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주땅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으로 만들었다. 내가 지나게 된 장춘, 길림 간 고속도로 변의 논은 물론 영남쪽의 망명객 가족들이 개간한 땅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 위에 자란 벼 포기를 보게 되자 나라를 잃은 나머지 만리 이국땅에서 우리 동포가 겪은 일들이 생각났다. 가슴에 안개같은 것이 끼어들어 한동안 들판의 정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고구려 고성 - 용담산성(龍潭山城)

심양공항에서 길림까지는 뜻밖에도 가까운 거리였다. 우리가 탄 차는 약 한시간 남짓으로 인구 150만을 헤아리는 길림시에 도착했다. 우리가 투숙할 신주대반점(神洲大飯店)에는 산동대학에서 온 최박광 교수, 박은숙 교수와 함께 북화대학의 정의(鄭毅) 교수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얼마동안 그들과 인사를 하고 명함을 교환한 다음 우리는 일단 객실 배정을 받아 여장을 풀었다. 점심시간으로 예정된 12시에 2층 식당으로 갔더니 중국식 밥과 반찬이 나왔다. 나의 첫 중국여행은 아직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인 1990년도에 있었다. 그때 식사에 나온 밥은 찰기가 거의 없는 멥쌀이어서 맛이 좋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먹어본 밥은 그와 달리 우리나라 것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었다. 반찬의 질도 상당히 좋아져서 큰 거부감 없이 들 수 있었다. 불과 10여년 상간에 중국사회의 성장과 발전이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을 받았다.

점심이 끝나자 우리는 시내 관광에 나서기로 했다. 처음 우리는 조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길림성 박물관을 보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가 고구려산성을 답사하자는 의견이었다. 두 안에 대해서 나는 후자를 택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했다. 심양에 있는 요령성 박물관에는 구 만주국 때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어 볼만한 것이 상당량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길림은 오랫동안 교통이나 산업의 요충지였을 뿐 유형문화 유산이

다수 수장될 가능성이 희박한 지역이다. 그러나 고구려산성은 그와 사정이 달랐다. 우리 일행 가운데 고구려산성을 실제 답사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앞으로도 우리가 전공하는 학문의 성격으로 보아 중국의 고적들을 답사할 기회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거치면서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고구려의 산성 하나를 보아 두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내 나름대로 말해보았다. 우리 일행은 다행히 내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길림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송화강을 건너 구시가지 쪽 외곽에 있는 용담산성으로 차를 몰았다.

길림시는 서울과 비슷하게 강남쪽에 새 시가지가 형성되어 빌딩이 숲을 이루고 상업과 산업의 중심지역 구실을 했다. 그에 비해서 구 시가지는 공장이 들어서고 집들도 낡은 것이어서 인기가 없는 것 같았다. 어떻든 우리가 탄 관광버스는 서북쪽으로 방향을 잡아 송화강 위에 걸린 제법 긴 다리를 건너갔다. 그리고 난 다음 구 시가지를 조금 벗어난 동쪽 끝자리에서 차가 멎었다. 중국측이 용담산성이라고 게시한 고구령산성 하나가 거기 있었다.

10여 년 전 한국어판이 먼저 나온 이전복(李殿福)의 『中國內의 高句麗 遺蹟』(학연문화사, 1994)에 따르면 중국 동북지방에 산재한 구구려의 고성은 길림성의 것이 국내성(國內城), 환도성(丸都城), 패왕조산성(覇王朝山城) 등 16개이다. 또한 요령성에서 발견된 것만도 오녀산성(五女山城), 흑구산성(黑溝山城), 봉황산성(鳳凰山城) 등 열에 이른다. 용담산성은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고구려 고성의 이름에 용담이 붙은 것은 성을 쌓은 산이 용담산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용담산이란 이름은 성안에 만든 인공저수지인 용담에서 유래한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용담산성이란 이름은 명백하게 고구려가 처음 이 성을 쌓은 다음 붙인 이름은 아닐 것이다. 중국 당국도 이런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 성 입구의 매표소 앞에 세운 안내판에는 일찍 이 성이 고구려산성이었다고 설명의 말을 붙인 것이 있었다.

지금 이 성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토에 속하지 않는 땅에 있다. 그리하여 우리 학술조사팀이 이 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중국측에서는 이미 1957년과 1958년 등 2회에 걸쳐서 성곽 일부를 발굴하고 특히 〈용담(龍潭)〉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한 모양이다. 그 결과 우물바닥에서 요(遼), 금(金) 양대의 유물이 발견되어 이 성의 축조가 고구려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얼핏 논거가 있는 듯한 중국측 주장에는 되짚어 보면 감출 길이 없는 논리상의 허구성이 발견된다. 우리가 경주의 안압지를 준설, 조사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고 나서의 일이다. 그때 안압지의 바닥에서 서역의 옥돌이 나왔고 중국 한대(漢代)의 것으로 추정된 동경도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안압지를 만든 것이 페르시아였다고 하거나 한나라가 그것을 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축성의 방식이나 당시의 고구려 강역을 생각해 보면 이 성이 고구려에 의해 그 군사 전략적 목적으로 축조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용담산성은 엄연하게 고구려의, 고구려인이 축조한,

고구려의 산성일 뿐이었다.

우리 일행이 찾은 용담산성은 방패 모양을 하고 길게 남북으로 뻗어 있었다. 우리가 오른쪽은 옛적 서문이 있었던 곳으로 거기서부터 곧 정상을 향한 비탈이 시작되었다. 성곽은 오랜 세월, 풍상을 거치면서 많이 허물어져 있었다. 그래도 참나무, 이깔나무와 가뭄비나무가 들어선 숲길 사이사이로 황토 흙을 다져 쌓은 성벽이 나타났다. 밑바닥 폭이 10m 정도, 상층은 그보다 좁아 가늠이 안 되었는데 뒤에 중국측의 조사 보고서를 보니 그 폭이 1m에서 2m 정도라고 적혀있었다. 이 성은 용담산 전체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가운데 산을 한바퀴 감아 돈 모양이었다. 사이사이에는 돌 구조물도 나왔다. 돌로 된 성의 하부는 굵고 큼직한 화강암이 이용되어 있었다. 위로 오를수록 작은 돌이 보였다. 거의 수직의 단애가 되게 쌓아 올린 모양도 T.V에서 방영된 고구려 축성의 기법을 잘 드러낸 것이었다. 산성의 가장 높은 곳은 해발 344m. 거기에 오르기 전에 우리 일행은 남쪽으로 난 한 봉우리에 서게 되었다. 거기서는 우리가 건너온 송화강이 보였고 그 일대가 길림시 남쪽과 그에 이은 벌판이었다. 앞이 탁 트여 강 남쪽에 들어선 빌딩숲이 없었다면 일망천리라는 과장도 가능할 정도로 훌륭한 조망이었다. 우리 입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아, 좋다는 탄성이 흘러나왔다.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으므로 우리는 산정에 위치한 조망대에 들른 다음 곧 귀로를 택했다. 올라온 길을 조금 북쪽으로 틀자 산의 7부 능선쯤 되는 곳에 제법 규모가 큰 못이 나왔다. 그 모양이 말발굽에 가까웠는데 동서의 길이가 가장 길어 52m여, 남북이 25m가령이라고 적혀있었다. 또한 안내판에는 그 수심이 여름철 가장 물이 많은 때가 9m 정도라고 되어 있어 비상시에 상당한 용수 저장이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얼핏보아 전투가 시작되면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식수와 용수원으로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용담을 돌아보고 조금 북쪽길을 오르니까 중국측이 한뇌(旱牢)라고 하는 마른 못이 나왔다. 이름이 못이지만 한뇌(旱牢)에는 물이 전혀 고여있지 않았다. 그 지름이 100m 정도, 깊이가 3m 가령이었고 지표를 파고 둘레를 화강암으로 축조한 구조물이었다. 벽이 수직으로 되어있었고 바닥은 역시 석회로 다진 흔적이 남아있는 평면이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구조물을 저수용이 아닌 곡물저장용 창고라고 보는 이도 있다고 했다. 또한 죄수나 전쟁포로 수감용으로 만든 뇌옥시설 일부라고 해석하는 예가 있는 모양이다. 어떻든 이 산성을 돌아본 우리의 감회는 남달랐다. 중국측에서 추정하는 대로라면 용담산성이 이루어진 연대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에서 장수왕(長壽王) 연간이다. 그러니까 성이 축조되고 난 다음 덧없는 세월이 2천 가까이 흘러갔다. 그 사이에 고구려가 무너지고 발해가 깨어졌다.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 우리 민족의 국경선은 압록강, 두만강 선을 넘지 못했다. 그리하여 단군과 해모수, 주몽의 고토가 남의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우리는 그 땅을 속절없는 길손의 신세가 되어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산성을 내려서는 우리 발길은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길림에 머물게 된 첫날의 만찬은 신주대반점 1층의 연회장에서 있었다. 이때 우리 일행은 주빈석 테이블을 차지했고 내 옆자리에는 북화대학의 관계자들과 함께 최박광, 주종연, 윤홍로, 최원규 등이 앉았다. 식사 전에 북화대학측의 긴 환영사가 있었다. 북화대학측의 말은 사회주의 국가의 관례대로 학술회의와 직접 관계가 없는 학교 소개, 중국의 문교정책, 나아가 그와 학교 간부들의 경영전략에 관한 것과 실적 등으로 이어졌다. 그 소요 시간이 자그마치 30여 분, 식사 전 인사말 치고는 조금 지루하게 생각되었다. 다만 북화대학이 한국의 몇몇 대학과 학사교류를 하여 서로 유학생들을 교환하며 일부 학과의 학점까지 인정하고 있다는 대목은 흥미가 발동했다. 나는 중국어가 전혀 벙어리라 궁금한 것이 있어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북화대학과 학사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대학 이름을 듣게 되자 적지 않게 관심이 쏠렸다.

식사 중 우리는 중국식으로 몇 번인가 건배 제의를 받고 또한 그에 대한 응답 절차를 밟았다. 우리 일행 가운데 나는 술에 제일 약했다. 주빈석에 앉았으면서도 연거푸 돌아오는 술잔을 거듭 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최원규 교수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대만 유학 때 배웠다는 중국말을 우리말과 섞어 써가면서 중국측의 술잔을 차례를 받아 마시고 또한 건네주고 했다. 그의 덕택으로 자칫 절름발이 꼴이 될뻔한 만찬자리가 제법 흥겨운 것이 되었다.

9월 7일

먼 길을 오느라고 그랬는지 어제 밤에는 푹 잤다. 아침 여섯시에 잠이 깨어 수도꼭지를 틀어보니 문제가 있었다. 세면기에 붉은색 녹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호텔을 지을 때 건축자재업자 가운데 불량품 수도관을 납품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1960년대 후반기부터 한국의 일부 공공건물에도 이런 사례가 이곳저곳에 나타났다. 그때는 고도성장을 지향하면서 대소 구조물이 발주되고 서울이나 부산에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서 일부 공공건물에는 부실공사가 있었다. 수도꼭지를 틀면 녹물이 흘러나왔던 것이다. 중국의 산업사회 진입은 우리나라보다 한 세대 가량 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여파가 오늘 내 목욕시간에 미친 것이구나 생각하고 쓴 웃음이 나왔다.

아침 산책으로 호텔 앞을 흐르는 송화강 물기슭으로 나가보았다. 호텔에서 길을 건너가자 곧 강반이 되었다. 하천 둔치에 이르는 계단 다음으로 공터가 나왔다. 구획 정리를 한 강 건너에 어제 우리가 다녀온 길림시 북쪽 구역이 보였다. 그쪽에도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서 내가 산 압구정쪽의 한강둔치가 생각났다. 우리쪽 둔치에는 대소 몇 개의 휴식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큰 것은 정구장 정도였다. 그 하나에 100여명 이상이 모여서 기공체조를 하고 있었다.

지도교사의 구령에 따라 여러 사람들이 진지하게 팔을 뻗고 몸을 굽히는 모양이 매우 유연해 보였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여성들이 주로 모여 검술동작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 통상복이 아닌 민속 도복같은 것을 입었고 두어 자 가량이 되는 칼자루에는 붉은 빛깔을 한 수술이 달려 있었다. 각자가 그런 칼을 들고 선도자의 구령에 따라 검무를 방불하게 하는 동작을 익히는 것 같았다.

내가 사는 성남 분당에도 중앙공원이 있다. 그 광장에도 아침마다 사람들이 모여 보건체조를 한다. 몇 번인가 그 광경을 보며 언젠가는 나도 그들과 함께 아침체조를 했으면 했는데 꼭 같은 생각을 다른 나라에서 해보았다. 9월달 송화강 강변의 공기는 스웨터를 걸친 내 피부에 좀 싸늘하게 느껴졌다. 내가 강물에 손을 담그어 보자 뒤에서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제 이웃 방들에 투숙한 최원규와 윤홍로 교수였다. 우리는 곧 한패가 되어서 조금 검은 빛을 띤 송화강 물을 만져보았다. 우리가 자리한 기슭에서 대안을 보았더니 강폭은 어림짐작으로 서울 한남대교 언저리의 한강 정도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물 기슭에는 군데군데 잡초가 보였고 사이사이 키가 작은 버드나무의 군락이 있었다. 우리 앞자리에 물거품이 이는 것으로 보아 유속은 상당히 빠른 것 같았다. 한강처럼 강물을 스치며 날아다니는 새는 보이지 않았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도 없는 것 같았다.

국제학술발표대회 첫날

첫날 학술발표대회는 북화대학 제1캠퍼스에서 열렸다. 발표장에 가기 위해 우리는 8:30분 호텔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했다. 우리가 도착한 발표장은 15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이었다. 회의를 시작할 무렵에는 그 자리가 거의 차 있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북화대학의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속의 대학원생과 연구원이 다수 참석한 결과였다.

학술발표회는 예정보다 약 10분이 늦은 9:10분에 시작되었다. 개회와 동시에 북화대학 총장 유화충(劉和忠)의 축사가 있었다. 어제 저녁 식사 때의 인사말과 비슷한 내용이었으나 거기에 살이 더 붙었다. 그의 치사는 자그마치 40분을 넘겼다. 그 다음이 내 차례였다. 나는 한·중·일의 문화상 유대관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두터워 지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몇 마디로 인사말을 끝맺었다. 이어 최박광 교수와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 고적연구소 소장(古籍硏究所 所長) 이덕산(李德山) 교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두분 다 시간을 끌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네 사람의 축사가 끝나고 나자 다음 순서로 연결된 시간이 많이 잠식되어 있었다. 그 나머지 10시에서 10시 반까지 30분간으로 잡힌 커피 브레이크가 10분간으로 단축되어 버렸다.

학술회의 본무대인 논문발표는 예정보다 20여 분이 늦은 11시 가까이에 시작되었다. 그

사회를 맡은 탕중남(湯重南) 교수는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역사연구소 소속이었다. 전공이 일본사로 중국일본사학회 회장직도 맡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연구의 권위인 것 같았다. 그의 사회로 오전에 세 사람이 논문을 발표하고 질의 토론을 가졌다.

趙軼峰(동북사범대학 아주문명연구원장) - 민족국가와 근대화(民族的 國家與近代化)
尹弘老(단국대학교) - 개화기의 진화론 수용과 문학사상
劉國石(북화대학 동아문화센터) - 동북지방 중국어의 만주어적 요소(東北地區 漢語中滿語因素)

국제학술발표회의의 성격상 발표되는 논문은 통역자가 붙었다. 한국어로 발표되는 논문은 중국어로, 중국어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통역이 되었고 일본어의 경우에도 그에 준했다. 그럼에도 나는 중국어에 귀머거리여서 발표논문의 중요 부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다. 적지 않게 불편했다.

조질봉(趙軼峰) 교수의 논문은 우리 세대가 그 일부를 겪은 중일관계를 다룬 것이었다. 그는 문제의 기점을 청일전쟁의 종결로 열린 마관조약(馬關條約)으로 잡고 그 후 일본의 영토적 침략이 거듭되었음을 지적했다. 그와 아울러 그는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 보장되기 위해서 민족국가와 그 역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역사, 특히 정치 외교사에 문외한인 나에게도 수긍이 가는 데가 있는 논문이었다.

윤홍로 교수의 논문은 그가 다년간 전념해 온 한국 근대문학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이광수(李光洙)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해왔는데 이번 논문은 진화론이 이광수와 같은 시기의 한국 작가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밝혀낸 것이다. 중국측의 반응이 좋아 발표 후 북화대학에서 발간되는 논문집에 수록 허가 요청이 온 것으로 들었다.

유국석(劉國石) 교수의 것은 이번 발표대회에 나온 단 하나의 어학 논문이었다. 지금 중국에서 만주어는 문자 그대로 소수민족의 것이 되어 공식문서에 쓰이는 예가 거의 없다고 들었다. 한때 대제국을 세운 민족어가 그렇게 쇠퇴해 버린 것이다. 유국석 교수의 논문은 그런 만주어를 중국의 지배세력을 이룬 한족(漢族)의 말에 비추어 보려는 시도여서 나에게는 적지 않은 관심이 갔다. 배포된 논문 별쇄를 보았더니 그 제1장이 〈환경언어〉로 되어 있었다. 그 허두에 목단강(牧丹江), 도문강(圖們江), 송화강, 압록강 등의 강 이름이 만주어에 대비되어 있었다.

① 牧丹江: 만주어 - 牧丹, 弯曲 그 음과 뜻이 감안되어 漢語의 牧丹江이 됨.
② 圖們江: 圖們 - 만주어로 萬의 뜻에서 萬源之江의 뜻으로 圖們江이라고 함.
③ 鴨綠江: 鴨綠 - 만주어로 池邊. 한어로 池邊江의 뜻.

④ 松花江: 만주어로 松阿里는 천하(天河), 烏拉은 江, 松阿里는 우리말의 미류내.

오전 연구발표는 예정보다 한 시간 가량 늑장이 되어 1시 30분에 끝났다. 우리는 중국측의 안내를 받아 본부 서쪽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대학 식당인데도 우리 일행을 배려한 것인지 반찬에 김치가 나왔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정의(鄭毅) 교수의 안내로 대학 구내를 돌아보았다. 학교 여기저기에는 한국 대학처럼 학생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어 그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았다. 한국에서 유학한 학생 수를 물었더니 100여 명에 이른다고 했고 그 밖의 외국인 학생이 500명 선이라고 해서 놀랐다.

본부의 서쪽에 자리한 의과대학과 예술대학은 그 규모가 큰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또하나 이색적인 풍경이 한때의 여학생이 전투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나는 혹 위탁생으로 받은 전투경찰이나 여군 훈련생인가 하여 정의 교수에게 물어보았다. 그의 말이 그들 여학생은 모두가 학부 신입생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면 그 첫해에 군사훈련을 이수시키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자 나는 곧 한국대학에서 일어났던 교련 반대의 회오리를 생각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학원사태였다. 그 무렵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과하는 군사훈련이 학원의 병영화이며 그것이 곧 군부독재의 연장 음모 수단의 일단이라고 하여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되었다. 나도 그때 마음속으로는 정부의 그런 시책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여학생들이 제복을 입고 질서있게 걷는 것을 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다.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무한 자유는 흔히 방종의 형태로 변질되기 쉽다. 그것을 완화, 수정하는 장치로써 대학에서 일정동안의 집단훈련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후의 연구발표 사회자는 한국측의 최박광 선생이 맡았다. 그는 중국체재의 경험이 상당기간이어서 사회를 통역없이 하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다. 그가 한국말로 하는 사회 내용을 산동대학의 박은숙(朴銀淑) 교수가 맡아서 중국말로 옮겼다. 오후의 연구발표는 논문 다섯 개가 될 정도로 강행군이 되었다.

湯重南 - 신중국의 대일외교와 중, 일 양국의 관계 발전(新中國的對日外交與中日關係發展)
朱鍾演(국민대학교) - 한중설화의 모티브 연구
程舒偉(동북산업대학) - 중일전쟁의 발단에 관하여(關于中日戰爭開端問題)
崔元圭(충남대학교) - 六堂의 신문학과 불교
鄭毅(북화대학 동아시아 연구센터) - 중일전쟁 전 일본의 제국의식 연구(戰前日本的帝國意識研究)

탕중남 교수의 논문은 표제가 공화국의 빛나는 60년(共和國輝煌六十年)이었다. 제목으로

짐작된 바와 같이 새 중국정부가 수립된 이후 일본과의 국교가 이루어진 경위를 밝힌 논문이었다. 그는 중국의 대일본 외교를 3기로 나누어 논술했다. 제1기는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부터 1972년까지였다. 이 시기는 다시 1949년에서 1950년대의 중반기경과 그에 이은 1970년대 초까지로 구분되었다. 이 시기 전반부에 중국과 일본은 이렇다 할 국교정상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후반기에 이르러 민간외교의 형태로 양국 간의 내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1958년 5월 일어난 나가사끼 국기사건(長崎國旗事件)이 있어 한때 양국 관계가 경직 국면을 맞은 일이 있다.

이 사건은 기시(岸信介)정부가 반중화정책을 채택한데서 발단되었다. 극렬우파가 중공기를 훼손시킨 사건으로 양국 간의 민간수준 교류조차가 한때 끊어져 버렸다. 이런 사태는 주은래 수상이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치 3원칙과 무역 3원칙을 발표하고 일본정부가 그를 수용하기로 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얻었다. 정치 3원칙이란 일본이 중국정부를 적대시하지 말 것과 함께 대만을 의식한 2개 중국정책을 버릴 것. 양국 간의 평화적 관계 회복이 조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이었다. 또한 경제 3원칙은 ① 정부 수준의 통상, 협정, ② 민간과 정부가 함께하는 교역(民間合同), ③ 모든 사안들은 개별적으로 정성들여 다룰 것(介別照顧) 등으로 되어 있었다.

탕중남 교수에 의하면 중일 외교관계가 획시기적 타결국면에 접어든 것이 1972년 부터다. 1971년 10월 중국국교정상화를 위해 주은래 수상이 복교(復交)3원칙을 제출했다. 그것이 ① 전 중국을 대표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뿐이다(世界上只有一介中國), ② 대만은 중공의 영토로 영토분할은 있을 수 없다(台湾是中華人民共和國領土不可分割一部分), ③ 일본과 대만정부사이의 조약은 불법적인 것이므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日臺條約是非法的 無效的 應予廢際) 등이었다. 당시 일본정부의 수상은 다나카(田中角榮)이었다. 그가 주은래의 수교 3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회담을 거쳐서 1976년 등소평(鄧少平)과 후꾸다(福田叫夫) 사이에 정부 간 수교의 길이 열렸다.

한중 국교의 제3기는 강택민 주석의 일본 천황 방문에 따른 일본측의 답례 방문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때부터 중국과 일본은 평화원칙에 입각하여 서로를 대화, 협력관계로 삼았으며 두 나라 사이의 교역양이 기하급수격으로 불어났다. 탕중남 교수는 그 주역으로 강택민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그의 발표는 순수 연구자의 시각보다는 정책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옹호하려는 측면이 더 강했다.

주종연, 최원규 교수의 논문은 중국측의 것과 달리 순수문학연구에 속하는 것이었다. 주종연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도검(刀劍)설화에 착안했다. 고구려의 유리왕은 부왕인 주몽과 어려서 헤어져 버렸다. 그는 주몽이 숨겨 둔 동검을 마루밑에서 찾아내어 부왕을 만남으로써 왕통을 계승하게 되고 대제국의 주인 자리에 오른다. 그에 대비되는 것이 〈수신기(搜神記)〉에

포함된 중국설화다. 오(吳)나라의 우장막야(于將莫耶)는 왕의 명령을 받들어 보검을 만들었다. 그것은 자·웅으로 된 한쌍의 칼이었는데 우장막야는 한 쌍 중에서 자검(雌劍)만 왕에게 바쳤다. 그는 집을 나설 때 부인에게 그가 만든 칼 가운데 웅검(雄劍)이 별도로 갈무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가 왕에게 쌍검 중 하나만을 바치자 크게 노한 吳王이 그를 죽여버렸다. 억울하게 그가 죽은 다음 자라난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말한 보검의 수수께끼를 풀어 웅검을 찾았다. 아들은 그것을 들고 왕궁에 들어가 왕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 주종연 교수의 논문은 비교문학의 정석인 모티브 대비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결론에서 다 같은 보검설화임에도 한국과 중국의 그것이 반대되는 종결구조가 되어 하나가 비극임에 반해 다른 하나가 그렇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것은 이 논문에 이용된 방법이 단순 비교에 그치지 않고 그 시각이 문화배경론으로 확산되어 있음을 뜻한다.

최원규 교수의 논문은 육당(六堂)문학에 내포된 불교적 요소를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문학자로서 육당은 문명개화의 선구자였고 조선주의의 확립을 지향한 문화운동가이기도 했다. 그런 그의 작품 속에서 해탈, 자재신(自在身)의 자취를 찾아내고자 한 일은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있는 일이었다.

정서위(程舒偉)와 정의 두 교수는 다같이 중국 현대사를 다룬 논문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우리는 중일전쟁을 중국현대사의 대전환기로 잡아왔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중국에서 전 민족이 단결, 총화를 이룬 총력동원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연장형태로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된 것이다. 그 중일전쟁이 발발한 시기를 이제까지 우리는 1937년 7월 7일의 노구교사건부터로 잡아왔다. 정서위 교수는 그것을 만주사변까지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무렵에 이미 일제가 대륙침공의 작전계획을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중국민족의 대일항전이 1937년부터 1945년까지가 아니라 1931년(만주, 노구교사건 발발)부터로 소급되어 14년간으로 확장된다고 주장했다.

정의 교수는 1962년생으로 길림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의 법정대학에 유학한 일본 외교사 전공자였다. 그는 공저로 『일본제국의 흥망(日本帝國的興亡)』, 『철완수상 요시타시게루(鐵腕首相吉田茂)』 등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발표 논문은 그 가운데 하나인 요시타(吉田茂) 연구의 부산물로 생각되었다. 요시타는 태평양 전쟁 중 자유주의자로 낙인 찍혀 헌병대의 감시를 받고 가택연금된 사람이었다. 그런 그도 만주국 관리로 있을 때 일본의 대륙침략 정책수립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근거 논문이 「나의 대만주 정책에 대한 견해(對滿政策之我見)」였다. 정의 교수의 논문은 거기에 대륙침략의 의도가 어떻게 내포되어 있는가를 논증해 나간 것이었다. 나는 한국에서 중국학이라면 경학이나 고전연구에 치중된 것만으로 보았다. 그것이 편견의 하나였음을 정의교수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오전에 세편 오후에 다섯편이 발표된 첫날 연구발표와 질의토론은 저녁 6시가 지나서야

끝났다. 중국의 표준시간은 한국보다 한시간 늦은 것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7시에 여덟 편의 논문 발표가 일단락을 본 것이다. 흔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발표 모임에는 결석자가 나오고 중도에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도 생긴다.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 그런 예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중국 연구자들이 연구발표에 임하는 진지한 정신자세를 엿본 것 같아 적지 않게 긴장되었다.

여섯시에 회의가 끝나자 우리는 시내에 있는 중화요리전문점으로 옮겼다. 그 자리에서 다시 북화대학 총장의 초대사가 있었다. 그에 이어 내가 답사를 맡아야 했다. 나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겪은 일제시대를 이야기하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의식에 대해 언급했다. 이육사(李陸史)의 「광야」〈백마타고 오는 초인〉을 인용한 것으로 내 이야기를 끝맺었다.

9월 8일

어제보다 한시간 정도 빨리 5시에 일어났다. 어제 저녁 중국에서 샤워 때 녹물을 뒤집어쓰지 않을 요령을 얻어들은 것이 있었다. 목욕 전에 수도꼭지를 크게 틀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샤워쪽으로 돌리면 된다는 것이었다. 배운대로 약 10분 정도 수도꼭지를 틀어 놓았더니 녹이 거의 섞이지 않은 물이 나왔다. 덕분에 제법 개운한 샤워를 할 수 있었다.

6시경 이웃방의 주종연, 윤홍로, 최원규 선생과 연락하여 어제처럼 송화강 둔치로 나갔다. 나무의자가 놓여있고 조경수가 심어진 자리에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 생김새가 우리 핏줄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보이길래 혹시 우리 교포인가 하여 말을 건네 보았다. 아주머니 한 분이 그의 조부가 충청도에서 살았다고 했다. 우리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는 듯하여 더 이상 이야기를 주고받지는 못했다.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송화강 물에 손을 담그어 보았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싸늘한 물살이 한강이나 낙동강과는 다른 것 같아 한가닥 서글픔 같은 것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혼자서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어릴 때 고향 산기슭에서 주운 꿩알 크기의 돌 하나를 발견했다. 길림쪽의 송화강 유역일대는 화강암 지대가 아닌 듯 그 일대에 보이는 돌들은 거의 모두가 암회색에 석질도 단단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아침 산책길에서 발견한 돌은 그와 달랐다. 녀석은 거의 옥돌에 가깝게 석질이 부드러웠고 빛깔도 반투명으로 유백색(乳白色)이었다. 나는 우리 일정이 내일 길림시를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기념될만한 것을 가지고 갔으면 했다. 그러던 차 마음에 도는 무돌 하나를 얻게 되어 마음이 아주 개운했다.

오늘 연구발표는 북화대학 제2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8시 30분 아침식사를 마치고 우리 일행은 대형버스를 이용하여 회의장소로 이동했다. 우리가 쓰게 된 논문 발표 장소는 북화대학

동아시아연구센터 1층에 있는 중형 세미나실이었다. 회의장 정면에 사회자와 발표자, 그리고 통역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일반석은 서로 마주볼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수용 가능 인원은 어림짐작으로 50석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보조석이 더 마련되는 것을 보았다.

어제와 달리 오늘 세미나는 예정시각인 9시 정각에 시작이 되었다. 제1부 사회자는 건국대학교의 신인섭 교수가 맡았다. 그의 곁자리에 산동대학의 박은숙 교수가 앉아 중국어와 한국어 통역을 했고 일본측 발표자의 경우에는 신입섭 교수가 한국어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말했다. 오전에 다섯분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全成坤(고려대학) - '신동아시아론'의 창출과 일본의 제국주의 - 만주국과 주변민족의 설정 논리를 중심으로
朴銀淑(산동대학 한국어계) - 근대 조선 문인의 만주의식(近代朝鮮文人的滿洲意識)
黃鎬德(성균관대학교) - 근대 한국어와 이중어사전
柴田淸繼(日本武庫川好大學) - 日本漢學家松崎鶴雄 在東北地久的學術文藝交流
廉松心(북화대학) - 淸朝同治年間 鴨綠江中上遊地區的社會狀況

전성곤 교수의 논문은 신동아론이 제기된 근거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에 따르면 동아시아에서 역사기술의 주체는 한족(漢族)으로 잡혀왔다. 1930년대에 일부 일본학자들이 그것을 뒤엎고 요(遼)와 금(金) 등 주변민족들의 활동을 그에 대체시켰다. 그 논리가 일본 군부의 만주건국에 논리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전성곤 교수의 논문에는 토리이(鳥居龍藏), 시라토리(白鳥庫吉), 이나바(稻葉君三), 에가미(江上波夫) 등의 업적을 거론한 것이 있었고 인용서목만도 20여 종에 이르러 나로서는 개발되는 바가 많았다.

박은숙 교수는 조선족 출신으로 한국현대문학이 전공이었다. 그는 성균관대학대학원에 유학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말 구사가 능숙했다. 한글로 된 논문에서 그는 일제시대 중기에 만주체제의 경험을 가진 최서해, 강경애. 박계주, 안수길과 그 후배 작가들인 황건, 김창걸 등의 작품을 거론하였다. 60년대 이후 한국에서 현대작가에 관한 연구는 기하급수격인 팽창계수를 그려 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만주라는 특정 공간을 통한 작가세계를 파악한 예는 많지 못하다. 박은숙 교수의 논문은 그 빈터를 메우기 위한 시도로 보아 의의가 있는 작업이었다.

황호덕 교수의 논문은 개항기의 신문화 수용을 주도한 최남선이 서구 수용과정에서 생긴 번역의 이중성을 다룬 것이었다. 새삼스럽게 밝힐 것도 없이 최남선의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번역의 수단이 되는 영, 독, 불, 러시아 사전이 간행되지 못했다. 근대적 우리말 사전도 간행된 것이 없었다. 거기서 빚어진 부작용으로 한동안 우리 주변에서는 영, 독, 불, 러시아어의 텍스트가

중개자에 해당되는 일본어판을 대본으로 하고 번역, 소개되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번역을 이중번역이라고 하여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해 왔다. 황호덕 교수는 이와 같은 종래 우리 주변의 통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원전이 아니면서 번역의 대본으로 이용된 제3국의 언어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텍스트일 수 있는 것이었다. 1차 번역이 아닌 간접번역을 꾀한 경우 우리는 그를 통해서 우리말을 새롭게 만들고 정비, 개선할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것으로 최남선이 선구적 역할을 한 개항기 직후의 이중번역이 우리말의 근대화에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젊은 세대로서 황호덕 교수의 논문에는 그 나름의 새로움 같은 것이 있었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사전은 일종의 정형화된(활자화된) 언어의 창고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번역자가 써야 할 언어는 많은 경우 그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생명체에 대비될 수 있다. 어느 외국문학자나 어학자가 그가 전공하는 나라의 작품을 자국어로 옮길 때 그의 작업이 사전만에 의거하지는 않는다. 고 송욱(宋稶) 교수는 보오드렐 시에 나오는 찻잔을 茶종이라고 옮긴 바 있다. 이런 번역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번역자의 머리일 것이며, 그 문화감각이며 지적인 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는 황호덕 교수의 참신한 시각에 감동을 받으면서도 그의 시각이 그런 차원으로 확충되기를 빌지 않을 수 없었다.

시바타(柴田) 교수의 논문 발표가 있기 전에 나는 일본 학자가 만주의 문인들과 교류한 일이 있었는지 여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말을 듣고 1930년대 초에 마쓰사끼(松崎鶴雄)가 현지에 체제하면서 중국측의 나진옥(羅玉振), 양종희(楊種羲) 등과 깊이 사귀고 시문을 주고 받은 바가 있음을 알았다. 단 발표논문은 요약만이 배포되어 나로서는 시바타 교수의 자세한 연구내용을 알아들을 길이 없어 유감이었다.

염송심 교수도 박은심 교수와 같은 조선족 출신이다. 그는 동북사범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중앙민족대학에서 학위를 한 의욕적 연구자였다. 그동안 한국에 유학하여 한중문화교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물로 나온 것이 『十八世紀朝中文化交流硏究』(吉林文史出版社, 2006)이다.

염송심 교수의 논문은 부제목이 〈以江北日記爲中心〉으로 되어 있었다. 여기서 『강북일기』란 청나라 말 동치연간(同治年間)에 이루어진 압록강 주변의 답사기록을 가리킨다. 국경지방에 산 우리 동포들이 이 시기에 서간도 농사라고 하여 압록강을 건너 그 북쪽인 만주땅에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었다. 마침내는 그들의 숫자가 마을과 거리를 이룰 정도가 되자 조선정부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을 관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조선측 지방관아에서 압록강 남쪽 행정지명을 따서 강북의 조선인이 개간한 구역에 삭주, 창성, 덕산 등의 명칭을 붙였다. 중앙에서는 청나라와의 외교관계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공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의 묵인아래서 농업 이민을 통한 식민지를 우리가 압록강 북쪽에 가지고 있었음을 뜻한다. 염송심

교수의 연구는 이런 사실을 문헌 중심으로 밝혀낸 것이었다.

오후 회의는 점심시간이 끝난 1시 30분부터 열렸다. 첫 번째 발표가 내 차례였다. 내 논문인 〈동북아시아의 문화전통과 한국현대시〉는 그 전문이 〈東北亞的傳統和韓國現代詩〉로 한역되어 먼저 배포가 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이육사의 〈광야〉, 김소월의 〈초혼〉,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등 작품 읽기를 한시와 대비시키면서 꾀해 본 것이었다. 시간을 단축할 생각에서 논문의 요점만을 간단히 말하고 내 차례를 마쳤다. 내 발표에 대해서 따로 질문이나 토론을 청한 사람은 없었다. 내 발표 다음 논문은 4명, 4편이었다.

田毅鵬(길림대학) - 세계화, 민족국가와 동아공영권(全球化民族國家與東亞認同)
王立新(북화대학) - 20세기 30년대 미국의 동아정책을 논함(20世紀30年代美國的東北政策述論)
李善洪(북화대학) - 청나라초 조선조 표전문제시고(清初朝鮮表箋問題初探)
申寅燮(건국대학교) - Diaspora의 관점에서 텍스트 읽기

내 발표가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휴식시간이 있었다. 그 사이에 동아시아연구센터의 정의 교수가 내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다음 차례를 지켜보는 나를 불문곡직으로 일으켜 세웠다. 내 힘을 빌려야겠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내 불용의한 입방아에 있었다. 오늘 우리 발표장이 된 동아연구센터 회의실과 복도에는 여러 장의 중국 서예가들 휘호가 걸려 있었다. 그 가운데 몇 분의 솜씨가 아주 훌륭하다고 논평을 한 것이 탈이었다. 내 말을 들은 정의 교수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 서예를 보는 상당한 안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냐고 했다. 옆자리의 주종연, 윤홍로, 최원규 교수가 입을 모아 안목보다 글씨 솜씨가 그만이라고 농담을 했다. 정의 교수가 금세 눈이 둥글어졌다. 그렇다면 지, 필, 묵을 준비할테니 일필휘지를 부탁한다고 서둘렀다. 거듭 손사래를 치고 부정했으므로 나는 그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끝난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내 논문발표가 끝나자 동아문화연구센터의 임원이 와서 나를 일으켜 세우게 된 것이다.

다음 차례의 발표가 곧 시작될 무렵이어서 일단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의 교수의 인도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 자리에는 벌써 중국화선지와 붓이 준비되어 있었다. 벼루는 따로 없고 중국 서예가들이 흔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접시모양의 그릇과 먹물을 마련한 것이 보였다. 선무당 마당 탓한다고 그 서슬 속에서도 나는 붓이 너무 작고 문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곧 문진과 함께 대소 두어 자루의 붓을 가진 학생이 나타났다. 먹물을 다루는 그의 솜씨가 범상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거두절미한 상태에서 서예를 했느냐, 몇 년째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았다(내 말은 같이 올라온 한국학생에 의해 그대로 통역이 되었다). 학생의

답이 학교 서예반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글씨를 쓴지는 5년 남짓이라고 했다. 서예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5년 경력의 서예 경력이라면 내 정도의 솜씨는 졸업한지 오래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었다. 그런 학생의 말은 더욱 내 손을 떨리게 했다. 그러나 어떻든 그릇의 물은 엎질러진 뒤였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쓰다듬어 가며 붓을 들었다.

화선지 반절 정도의 종이에 한국에서 몇 번인가 써 본 경험이 있는 〈根固枝榮〉 넉자를 썼다. 종이에 먹이 번져 첫 장은 버리기로 하고 다음 장에 〈鳥語華香〉이라고 써 보았다. 이 역시 첫솜씨는 낙제일 것 같아 두어 장을 더 만들었다. 그 사이에 주종연, 윤홍로 교수가 올라오고 중국쪽 발표자들도 여러 사람이 모여 들었다. 조금도 에누리 없이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런 때는 담배라도 한 대 피었으면 했으나 타고나면서 나는 그런 것도 배우지 못했다. 한숨 돌리려고 화장실에 다녀왔더니 커피에 다과가 나왔다. 그것으로 한숨 돌리고 크기가 다른 종이에 시경(詩經) 머리에 나오는 구절 〈詩三百思無邪〉를 써 보았다. 이 장을 쓴 다음 더 써봐야 없던 솜씨가 별안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붓을 놓았다. 다시 커피를 나눈 다음 중국측 학생들과 몇 마디를 주고받았다.

우리가 서예라고 하는 글씨쓰기를 중국에서는 서법(書法)이라고 했다. 일본의 서도(書道)와도 다른 말에 일리를 느끼고 다시 세미나 장으로 돌아갔다. 그동안 시간이 상당히 된 듯 내가 자리에 앉았을 때는 발표순서의 막바지여서 이선홍(李善洪) 교수가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순서로는 신인섭(申寅燮) 교수가 마지막이었는데 그 앞에 이루어진 몇 분의 논문발표를 못 듣게 되어 죄송한 생각을 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이선홍 교수는 역사학 전공학도로 한국중앙연구원에 와서 명청(明淸)의 외교문서를 모두 검토한 신진기예의 연구자였다. 그 연구결과가 2009년 7월 길림인민출판사에서 간행된 『朝鮮時代明淸外交文書硏究』였다. 거기에는 우리나라 외교사절의 표(表)와 전(箋), 주본(奏本)과 자문(咨文) 등을 매우 성실하게 검토, 분석한 자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작업을 위해서 그는 중앙연구원의 도서실과 성균관대학, 서울대학 규장각의 문헌들을 두루 열람한 모양이다. 전공에 임하는 그의 태도가 진지 그 자체임에 적지 않은 감명을 받았다. 이번에 발표하는 그의 논문은 위의 저서 일부에서 제기된 문제를 다시 살피는 것이었다.

신인섭 교수가 맡은 Diaspora의 문학은 유이민(流移民)의 문학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문화가 전공이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1장과 2장에서는 아리시마(有島武郞)의 「카인의 후예」와 오에(大江建三郞)의 「동시대 게임」을 다루었다. 그리고 한국작가의 경우에는 염상섭의 『만세전』과 안수길의 단편 「새벽」이 거론되었다. 처음 나는 간단하게 Diaspora의 개념을 고향상실 상황 쪽으로 생각했고 그 나머지 신인섭 교수가 같은 안수길의 장편 「북간도」를 접어둔 채 단편에 지나지 않은 「새벽」을 텍스트로 택한 이유가 궁금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새벽」 일부를 인용한 다음 그가 펼친 논의에서 명쾌하게 제시되었다.〈'살기 좋은 고향'과 대비해서

이주하는 곳의 척박함이 부각 표현되는 것이 디아스포라의 전형적 유형〉

신 교수의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틀에 걸친 국제학술 모임이 막을 내렸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형 수첩 9월 8일자 꼬리 부분에는 오후 다섯시경 학술발표대회 끝이라고 되어있다. 회의가 끝나자 북화대학측의 송별 만찬이 있었다. 우리 일행은 버스에 분승하고 제법 거리가 있는 중화요리점으로 향했다. 도중 우리가 지나는 길에 육문중학(毓文中學)이라고 큰 간판을 단 학교가 보였다. 육문중학은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오래 군림한 김일성이 한때 다닌 곳이다. 그 간판을 보면서 나는 우리가 2박 3일의 여정으로 묵은 길림과 그 주변지역이 우리 민족의 과거 현재에 끼치는 그림자가 뜻밖에도 짙은 것임을 느꼈다.

또 하나 사족처럼 붙여두어야 할 것이 신주대반점 벽의 시폭이었다. 첫날 저녁을 먹은 다음 나는 연회장 한 벽을 가득 메운 강희제(康熙帝)의 〈송화강방선가(松花江放船歌)〉를 보았다.

松花江江水淸
夜來雨過春濤生
浪花疊錦繡穀明

彩帆畵鷁隨風輕
簫韶小奏中流鳴
蒼巖翠壁兩岸橫

浮雲耀日何晶晶
乘流直下蛟龍驚
連檣接艦屯江城

貔貅建甲皆銳精
旌旄映水飜朱纓
我來問俗悲觀兵

松花江江水淸
浩浩瀚瀚沖波行
雲霞萬里開澄泓

- 康熙帝, 松花江放船歌, 전문

(송화강 강물은 청청하여라
지난밤 비개이고 봄물결인다
물에 뜬 꽃들은 비단 위에 놓은 자수
채색 배 그림 머리 물결 가르고
소소(簫韶) 가락 한마디에 강심이 운다.
푸른 바위 솟은 절벽 빗겨가는 물기슭
* 簫韶는 순(舜)임금이 만든 노래 곡조

구름 개어 솟은 해 눈부시는데
물살 갈라 배가 가니 미르가 운다
전함들 숲 이루어 강성(江城)이 되네

날랜 군사 굳은 갑옷 억센 병정들
전모는 물에 비춰 진홍빛 갓끈
나는 열병이 아니라 위문을 왔네

송화강 강물은 맑기도 해라
넘실넘실 출렁출렁 물결쳐가고
안갠가 구름인가 만리길 밝다)

나에게는 청나라의 황제인 강희제가 만리 변경인 송화강까지 순행한 사실부터가 놀라웠다. 그런데 그의 작품을 쓴 사람의 호가 의암(宜庵)이었다. 그는 단아한 행초로 강희제의 시를 쓰고 그 끝자리에 부서 도장으로 애신각라(愛新覺羅)를 사용하고 있었다. 널리 알려진대로 애신(愛新)은 여진족의 왕족명칭을 뜻하는 금(金)이다. 각라(覺羅)는 우리말의 겨레에 해당된다. 지난 세기 초에 청왕조는 망했다. 지금 만주족은 그 어디에도 국가 형태를 갖지 못하는 망국의 겨레가 되어버렸다. 그럼에도 옛 그들의 터전에는 아직도 한세기 전 피붙이들이 영화를 잊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 살고있는 것이다. 다음날 신주대반점을 하직하고 우리는 다시 교하(蛟河)와 돈화(敦化), 송강(松江), 이도백하(二道白河)를 거쳐 백두산에 올랐다. 길섶 굽이굽이에는 고구려, 발해의 꿈이 서린 듯 했고 글안과 여진족이 끼친 역사의 자취도 남아있었다. 내가 거기서 얻은 감회를 7언으로 적어본 것이 몇 수 되었다.

(一) 雲散平蕪依旧容
野村墻下雜花紅
祚榮故國那邊在

感古無言人我同

(二) 渤海雄邦雨後容
雲收郊郭酒旗紅
縱然帝紀尋無處
遠今山河今古同

一過敦化望渤海盛京故址

(구름 걷힌 넓은 들판 옛적 모습 그대론데
시골 마을 지붕 아래 들꽃은 진홍이데
대조영이 세운 나라 지금 어디 있단말가
옛날 그려 말을 잊긴 너도나도 한가질레

웅장했던 발해땅에 비는 그쳐 풍경좋고
구름 개인 골목턱에 목노집 깃발 붉다
오롯한 제국 벼리 물을 길 없는 자리
멀리 또는 가까이의 산과 강은 예대로다)

- 동화를 지나면서 발해의 서울 용천부 옛터를 바라보며.

重到殊方霜氣侵
平原添得好楓林
白山尙保神壇跡
鴨水猶鳴學士心
千里秋風先碧雁
萬畛野黍作黃金
回望天際靑丘遠
惟見寒郊月照臨

〈西間島秋興〉

(다시 찾은 남의 나라 서릿발 스며들고
넓은 들판 틈서리에 단풍든 숲이 있다
상기도 백두산은 단군 자취 갈무렸고

압록강 물소리에 삼학사의 한 서렸네
몇 천리 가을바람 기러기떼 거느리고
이랑이랑 메수수는 황금물결 이루었다
고개 들어 땅끝 보니 내 나라는 머나먼 곳
보이느니 거친 고을 종 달빛이 더불었다)

- 서간도에서 가을을 느껴워하며

위의 세 수는 9월 8일날 발해 옛 터전을 지나 백두산 가는 길에 본 정경들을 적어본 것이다. 이날 우리는 아침 8시 30분 신주대반점을 떠났다. 차가 길림 시가지를 벗어나자 우리가 탄 버스는 곧 한국의 산업도로 정도의 노폭을 가진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에는 강냉이와 콩, 고량들이 고개를 숙인 들판이 펼쳐졌고 그 사이사이에 황금빛을 띤 벼가 있는 논이 나왔다. 버스가 잠깐 멎은 곳이 장백산(長白山), 경박호(鏡泊湖), 육조산(六條山) 등의 표시가 보이는 갈림길에서였다. 그 어름에서부터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가 산재한 촌락과 숲이 시작되었다. 길가에는 조경용으로 심은 듯 보이는 화초들과 관목들이 끝없이 나타났다. 특히 그 가운데서 사르비아가 인상적이었다.

녀석들은 대륙을 가로지르다 싶이한 도로 양쪽에 일정한 간격을 지키며 그 선지색의 빛깔을 하고 가을 하늘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옆자리에 앉은 안내원을 보고 나는 중국어로 사르비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았다. 그러자 관홍(串紅) 또는 보보고(步步高)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관홍이란 산적 꼬지처럼 된 사르비아의 모양에서 유래한 이름인 것 같았다.

차가 좀 좁은 길에 접어들자 우리가 가는 방향에 한글 간판을 단 부락이 보였다. 반가운 나머지 손을 흔들었으나 집들은 대개 비어있었다. 건물의 손질이 되어 있지 않고 몇 몇 집은 문들이 떨어져 나간 것도 보였다. 옆자리 사람에게 까닭을 물었다. 조선족들 부락에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들어가 버려 저렇게 폐옥과 반폐옥이 있는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교하(蛟河) 가까이에서 점심을 한 다음 다시 우리 일행은 돈화(敦化)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돈화 일대는 일찍 발해의 서경압록부(西京鴨綠府)에 속하는 지역이었다. 지금도 이 일대 여기저기에는 옛적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이 산재해 있었다. 절구의 앞뒤에 대조영(大祚榮)과 발해웅방(渤海雄邦) 등의 말이 담긴 것은 그런 사실에 관계된다.

흔히 우리가 서간도라고 불러온 중국의 동북지방을 내가 여행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0년도 여름 나는 아직 국교가 이루어지기 전의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다. 그때는 이중언어학회 주최의 학술발표대회에 객원으로 따라갔다. 내 두 번째 중국여행은 2003년 가을 무렵이었다. 이때 나는 중국과 한국의 작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지용 문학제를 연변에서

열기 위해 5박 6일의 여정에 올랐던 것이다. 북경과 심양을 들른 다음 우리 일행은 연변대학에서 한국과 중국 합동으로 문학강연과 시낭송, 음악으로 이루어진 지용문학기념제를 가졌다. 이어 백두산에 오르고 귀로 청산리 전투의 기념비 앞에 들국화를 바친 다음 긴 묵념을 했다. 8행으로 된 율시의 머리가 중도(重到-다시 오다)로 시작된 것은 그에 말미 않는다.

이번 우리가 고구려와 발해의 옛 터전에 섰을 때 계절은 뚜렷한 가을이었다. 한국에서는 반소매 차림의 평상복이 거기서는 한기를 느끼게 해서 입을 수가 없었다. 벌써 들판에는 무서리가 내려 나무들은 붉고 노랑색으로 물이 들어 있었다. 끝이 없는 벌판을 달리고 어느 자리에 나타난 단풍숲을 본 광경이 너무 선명하였다. 〈平原添得好楓林 - 들판은 단풍진 숲을 곁들여 훌륭하다〉의 한 행은 거기에서 얻은 것이다.

백두산 기슭에 접어들게 되자 우리 머리에는 『삼국유사』의 허두에 나오는 환웅과 단군의 건국신화가 떠올랐다. 셋째줄의 〈白山尙保〉는 거기서 빚어진 정서로 거의 자동기술로 나온 것이다. 돈화부터 우리는 지도를 보며 집안(輯安)을 찾아내고는 광개토대왕의 옛일을 떠올리기도 했다. 그와 아울러 신라, 고려, 조선조로 이어진 우리 역사를 돌이키면서 끝내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으로 축소된 내 나라의 강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고려와 조선조에 이르는 기간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난 글안족과 여진족의 일들이 생각났다. 그들의 기마군단에 의한 습격을 받고 거듭 우리 강토가 유린당했다. 그 가운데도 병자호란은 참으로 우리 민족사에서 유례가 드문 대전란이었다. 이때 적화주전(斥和主戰)을 외친 벼슬아치와 선비들이 결박, 납치되어 갔다. 그 가운데 세사람의 학사들이 있었다. 오달제, 윤집, 홍봉한 등은 거듭 항복, 칭신(稱臣)을 강요하는 청태조의 위협을 결연하게 맞서 싸우며 칭신(稱臣)을 거부하다가 순국했다. 우리가 선 서간도는 바로 그들이 피 흘리고 뼈를 묻게 된 땅이었다. 〈호태왕비전(好太王碑前)〉 다음에 시대로 보아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학사(學士)〉가 놓여진 것은 대의에 산 그들의 정신이 너무도 절실했기 때문이다.